

전남교육청, 학부모 지원행정 '눈길'

22개 시·군 직접 찾아 학부모회 운영 등 지원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된 학교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 고흥을 시작으로 12월 2일 나주까지, 학부모가 모이는 22개 시·군 지역사회에 직접 찾아가 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에 나서고 있다.

18일엔 완도, 22일 진도, 24일 구례, 30일 순천, 11월 21일 영광, 29일 장성, 12월 2일 나주를 방문해 학교학부모회 운영과 관련한 지원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높아진 전남 학부모의 수준에 부응하는 명사 초청 강연을 11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 학부모 정책은 패러다임부터 바뀌었다.

학부모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 회의를 열고 등록, 회의자료 제작, 진행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한다.

교육청은 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학부모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회가 스스로 교육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44명의 분야별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제공했다.

2020년에는 학부모회가 의존성을 줄이고 자치기구로서, 총회를 스스로 소집하고 계획을 수립해 활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보완과 우수사례 발굴을 진행중이며, 12월 관련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여수 학부모 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최경희 강사(순천팔마고 수석교사)를 초빙해 학부모회 회의 방법에 대한 실습 교육과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10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



의를 보였다.

이처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전남의 초·중·고·특수학교 816교의 학부모회가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학부모가 주관하는 학부모교육과 협의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중 22개 지역 학부모회 네트워크에서 열린 100회의 협의회에 3,090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수렴된 현장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부모가 주체로서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의 요청을 수용해 2020년 학부모회실 구축, 예산 사용의 간소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창의예술고 첫 신입생 모집

광양시에 신설되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이하 한국창의예술고)가 내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전국 단위로 첫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한국창의예술고 신입생 선발을 위해 오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입학원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창의음악과 40명, 창의미술과 20명 등 총 60명이다.

한국창의예술고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 국립 예술계열 특목고이자, 전남 동부권 최초의 예술고로서 광양시 마동에 들어선다. 연면적 1만 1,01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본관동과 급식실, 체육실, 연습실, 기숙사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 짓고 운동장과 야외 조경, 진입로 등 최종 공정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혁신교육과는 지난 9월 초, 5명의 개교 준비팀을 구성해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전형 관련 업무와 학교홍보 및 강사선발 등 개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심미적 감성을 갖춘 세계적인 창의예술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되는 한국창의예술고는 그동안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창의융합 프로그램 마련 및 우수한 강사진 확보에 진력해왔다. 또한 광양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국립음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택)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학생 개개인의 예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준비도 착착 이뤄지고 있다. 창의음악과는 러시아 국립음악원 교수 초빙수업을 비롯해 방학 중 학생들의 러시아 현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의미술과는 프랑스 국립고등예술학교 교류 및 현지 전문작가 워크숍 등을 통해 선진 예술 역량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총 100억 원의 학교육성사업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강사 확보와 최상의 교육여건 구축, 우수 프로그램 및 강좌 유치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http://koreaart.hs.jne.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교육청 Wee스쿨 돈보스코학교

국토순례 실시...23일 출발

광주시교육청지정 Wee스쿨인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이하 돈보스코학교)' 학생 64명과 교직원 20명은 오는 23일 전라북도 고창군(고인돌박물관)을 출발하여 25일 광산구 본교까지 2박 3일간 총거리 100km를 도보하는 국토순례를 실시한다.

돈보스코학교에서는 매년 2학기 주요 대안교과로 '국토순례'를 실시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걸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힘든 여정 속에서 한계를 극복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돈보스코학교는 매년 국토순례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후원하며 국토순례의 의미를 다진다. 올해는 우간다 팔라벳 지역 난민캠프를 후원할 계획이다.

돈보스코학교 국토순례에 직접 동참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1km에 100원씩 총 100km의 거리를 최소(1계좌) 10,000원부터 후원할 수 있다.

1차 국토순례사전교육(10월 10일)을 시작으로 2회에 걸친 도보훈련을 통해 준비를 마친 돈보스코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안전한 여정 안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돌아올 계획이다.

오지용 교장은 "오직 자신과 친구, 선생님만 의지하며 불편한 여행을 시작한다. 끝없이 펼쳐진 길을 걸으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거친 돌부리, 작열하는 태양을 마주하며, 이전과 다른 자신과 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간다 난민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보람을 갖고 도전한다"라고 전했다.

고흥 두원초, 도화헌서 미술 감상 체험



고흥 두원초등학교는 15일 3, 4학년 학생들이 고흥 도화헌에 있는 도화헌 미술관을 찾아가 다양한 미술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예술 교육이 지역 미술관과 학교가 함께 전문가를 모시고 미술 체험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살아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먼저 우리 고택 고흥에서 유명한 화가인 천경자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백이 우리 고택 출신임을 알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초상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초상화로 유명한 동양의 채복과 서양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체험시간에는 화가 선생님이 직접 한 모뎀씩 돌아가며 붓을 사용

하는 방법, 붓의 농담, 길쭉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후 학생들이 먹과 붓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름, 학교 이름 등 글자를 쓰거나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화선지에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어서 선생님이 중국에서 직접 사왔다는 상앗빛 화선지를 나눠주시면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얼굴을 수십 개 겹쳐서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하는 학생, 해골 모양 자화상, 가족을 함께 그리는 학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화상을 표현하였다.

특히 선생님께서 학생들 한명씩 개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발하고 참신한 부분을 계속 이끌어내고 칭찬해 주셔서 학생들은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화상을 그렸다.

자화상 그리기 활동을 끝나고 학생들은 미술관에 전시된 선생님의 개인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에 대해 화가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감상활동을 하였다.



전남여고 미술동아리 '그리샘' 전시회

전남여자고등학교 미술동아리 '그리샘' (지도교사 이진아) 소속 학생들은 지난 14일 학교 인근 전시 공간 '예술공간 집'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작업한 그림 20여 점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남여고 '그리샘' 동아리 학생들은 올 한 해 동안 진로 탐색 활동 일환으로 5월에 홍익대학교 캠퍼스 투어, DDP 체험, The

Magic of Animation 작품 감상에 참여하여 미적감수성을 함양했다.

또한, 전남여고 정문에 항일학생독립운동 발원지로서의 정신과 혼을 계승하기 위해 독립운동 벽화 작업을 완성하였고, 7월의 스트리트 아트 작품 제작, 9월에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현장체험학습 등에 참여했다.

조인호 기자

